

<1번>

제시문들의 공통된 주제어는 아름다움, 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시문들은 아름다움의 기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제시한다.

우선, 제시문 (가)는 (나),(다)와 달리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즉 자연미를 추구한다. (가)에 의하면, 인위적으로 변형된 매화들은 병들고 죽었다. (가)의 화자는 이러한 행위들을 촉발한 문인 화가들에 대해 비판하면서 순리대로 매화를 기를 것을 다짐한다. 다시 말해, (가)에서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자연미에 대해서 예찬한다.

이와는 달리, 제시문 (나)와 (다)는 아름다움에는 인위가 개입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러나, 인공미에 대하여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두 제시문 간에 차이가 있다. (나)에서는 인공미 자체에 대해서 우월함을 드러낸다. 제시문 (나)를 보면, 무량수전이 의상대사에 의하여 창건되었는데, 이 목조 건축은 모든 건축 요소가 아름답고 자연과도 잘 조화되었다고 제시한다. (나)에 의하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건조물과 자연의 조화는 아름다움의 순리이다. 즉, 제시문 (나)는 인위적인 아름다움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더더욱 숭고하고 가치 있게 만들며, 인공미가 겉으로 드러남에 대해서 예찬한다.

한편, 제시문 (다)는 아름다움의 기준을 두 가지로 제시하는데, 이 두 조건은 서로 역설관계에 놓여 있다. (다)는 아무런 티도 내지 않으면서 우아한 것이 아름다움이라고 본다. (다)에서는 우아하게 꾸미는, 모종의 기교라는 인공미가 개입되면서 동시에 그것을 최대한 아무런 티가 나지 않게 할 때 아름다움이 비로소 발현된다고 본다. 다시 말해, 인공에 의해 우아하게 꾸미되, 그러한 아름다움을 자연스럽게 표현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다)에서는 자연스러움을 인위적인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는 인공미 자체를 뽐내고 극찬하는 (나)와 대조되는 모습으로, 인공미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되, 뽐내지 말라는 것을 기술하는, 차이를 보인다.

이와 더불어, 제시문들은 아름다움을 구성하는 요소 중 자연스러움의 정의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견해를 기술한다. (가)는 자연스러움을 자연 그대로 냅두는, 자연의 순리를 제시한다. 반면, 제시문 (나)는 자연미와 인공미의 조화라는, 조화에 중점을 둔다. 한편, 제시문 (다)는 자연스러움을 인위라고 규정한다.

<2번>

제시문 (라)에서는 다이아몬드 원석 및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그림으로 제시되어 있다. 다이아몬드 원석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 물방울 다이아몬드는 가공된 상태로 볼 수 있다. (라)에서의 다이아몬드 원석은 가공되어 더더욱 가치있는 물방울 다이아몬드로 바뀐다. 한편, 제시문 (가)의 논지는 아름다움은 자연 그 본연의 상태로 유지될 때 발현한다는 것이다.

우선,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 제시문 (라)를 보면, (다)에서는 아름다움에는 무엇보다도 우아함이 요구되고, 우아함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아무런 티도 내지 않아야 한다. 즉, 기교는 개입하면서 동시에 겉으로 티를 내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다이아몬드 원석은 기교를 통해 꾸며지지 않았다. 그러나, (다)에서 제시된 섬세하게 갈고 닦은 정신, 즉 기교를 통한 인공미에 의해 물방울 다이아몬드로 바뀌었다. 그러나, 물방울 다이아몬드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며, 빛나는 그 특수성에 의해서 아무런 티가 나지 않는, 뽀내지 않는 속성이 나타날 수 없다. 그렇기에, (다)에서 말하는 진정한 아름다움이 나타났다고 보기엔 어렵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의 논지를 평가하면, 이는 일견 타당하나, 타당하지 않은 점도 있다. 다이아몬드 원석을 물방울 다이아몬드로 바꾸면서, 인공미가 개입되었는데, 오히려 섬세하고 갈고 닦아지며 더 아름다워진 면은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러한 아름다워짐을 자연스럽게 티를 내지 않아야 하는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역설적으로 가공을 통해 아름다워졌으나, 뽀냄으로 인해 아름다워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가)의 논지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제시문 (라)를 보면, (나)에서는 아름다움은 인공미가 개입되어 자연과 조화됨으로써 나타난다. 다이아몬드 원석은 사실 그 자체로는 주변과 어우러져 아름답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인공미의 개입으로 인해 물방울 다이아몬드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나)에 기술된 간결성, 역학적, 비례, 조화스러운 각도 등이 물방울 다이아몬드에 나타난다. 또한, 물방울 다이아몬드는 아름다움을 뽀내는 조건 하에 다른 모종의 사물들과 대체적으로 어우러지며, 다이아몬드 원석에 비해 조화를 잘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라)의 의미는 (나)와 다소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의 논지를 평가하자면, 인위의 개입으로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자연 그대로일 때 아름다움이 구현된다는 논지는 비판 가능하다.

(가)에서 나타난 문인화가들은 매화를 인공적으로 변형하여 더 높은 값을 받고 판매한다. 이는 (라)에서 나타난 다이아몬드 원석을 물방울 다이아몬드로 변형하여 경제성 측면에서 더 높은 가치를 만드는 행위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매화와 다이아몬드 모두 인위적으로 변형함으로써 높은 경제성을 띠는 것은 그만큼 아름다움을 지니기에 수요가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가)를 보면, 제시문 (가)의 논지는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인위가 개입되었을 때 경제성이 있고, 아름다움이 부가된다는 것은 (가)의 논지와 전혀 맞지 않다.